

연구논문

루만 체계이론의 여성학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소고*

김미경**

〈국문초록〉

본 논문은 그동안 진보학문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오던 여성학이 제도화 되면서 후속세대의 재생산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여성운동가를 더 이상 배출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여성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가운데 루만을 여성학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동안 서구의 전통적 인식론에서 중요시했던 판단하는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루만의 ‘관찰자’ 개념으로 ‘체계가 환경에 접근하는 체계/환경-차이 이론적 방법론을 페미니즘 인식론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루만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이해에 있어 이데올로기성을 극복하고 그것이 재생산되는 후속소통 메카니즘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루만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루만의 체계/환경-차이 이론의 인식론적 전제를 수용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주제어: 서구 전통적 인식론, 체계/환경-차이 이론, 여성운동의 제도화, 이론의 이데올로기성, 후속 소통메카니즘

* 이 연구는 2016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mkkim@gwangju.ac.kr)

© 2016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문제제기

그동안 여성학은 가부장제 하 남녀불평등 구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론들을 생산해왔다. 무엇보다도 여성학의 강점은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견인해 왔는데 있다. 그러나 가부장제에 대한 수많은 비판과 대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의 '전근대적' 가부장성은 소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전근대성인 가부장제가 근대의 자본주의적 형태로 탈바꿈한 '전근대의 근대적 동시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그동안 여성학자들의 노력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이론' 내지는 '가부장주의적 자본주의 이론'으로 체계화되었다(Beer, 1989; Kim, 2000; 안숙영, 2010; 임옥희, 2011).

정책은 운동이 요구하는 것을 국가가 받아들여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반이 된다. 무엇보다도 여성정책관련 분야는 2001년 여성부가 생긴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성운동이 그동안 요구했던 이슈들은 국가의 정책이 되어 제도화 되었고 여성의 삶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사회불평등 뿐만 아니라 남녀불평등의 문제는 우리사회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언제부터인지 "좌파이론이 추구하는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회변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데도 왜 사회는 좌파 이론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의 사고와 삶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쯤은 알 나이가 되어갔다. 그동안 맑시스트로서, 페미니스트로서 내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에 사로잡혀, 그것이 옳다는 신념 하나로 살아왔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또한 그 많은 이데올로기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다시 하버마스(Habermas)적 성찰의 개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¹⁾ 보수든 진보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상대화 될 수 있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즈음 우연한 기회에 루만이라는 이론가를 만나게 되었다.

루만(Luhmann) 이론을 접하게 되면서 그동안 했던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진보학문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오던 여성학이 그 어떤 영역에서보다도 제도화 되면서 후속세대의 재생산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여성운동가는 배출하기 힘들지만 국가가 만든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김미경, 2015) 앞에서 점차 꺼져가던 사회학과 여성학에 대한 열정이 루만을 통해 되살 나기 시작하였다. 사실 본 연구자는 아직 루만의 체계이론의 입문자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연구했던 여성학²⁾과 루만을 어떻게 접맥할 수 있을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연구욕이 다시 불타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로서, 그동안 서구의 전통적 인식론에서 중요시 했던 ‘판단하는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루만의 ‘관찰자’ 개념으로 ‘체계가 환경에 접근하는 체계/환경-차이 이론적 방법론을 페미니즘 인식론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보고자 한다(노진철, 2000). 그 과정에서 루만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어떠한 이론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특히 여성학의 이념적 당파성을

1) 본 연구자의 석사논문 주제는 ‘하버마스의 비판의 개념을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었으니 거의 30년 만에 하버마스의 비판, 성찰에 대한 개념으로 관심이 다시 돌아온 셈이었다.

2) 본고에서는 여성학과 페미니즘을 맥락에 따라 구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중요시하는 본 연구자가 이 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부장적 권력의 ‘후속 소통 구조’를 해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루만의 인식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이론의 이데올로기성

1) 이론의 순환논증

루만은 모든 이론이 ‘순환논증’적이라고 비판하고 자신의 이론을, 이론의 이론으로서 거대이론이라고 명명하였다(Luhmann, 1987).³⁾ 어쩌면 이러한 자신의 이론에 대한 자신감은 이론적 자기도취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본인이 사회학에서도 미시이론보다는 거시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사회체계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시도했던 것들이 루만적 의미에서 체계가 어떻게 환경으로부터 분화하여 구조화되는지에 대한 작동원리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조화된 체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에 그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루만이 체계이론을 이론의 이론인 거대이론으로서 정립하고자 했던 의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성학은 그 어떤 학문보다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성평등 사회를 추구해 왔다. 그동안 가부장제 이론은 주로 가해자 내지는 지배자 남성 대 피해자 내지는 피지배자 여성을 설정해 놓고 남성 중심적 사회체계의 재생산에 대해 비판해 왔다. 그러나 루만적 개념에 따르면 사회체계에 대한 이러한

3) 루만은 『사회적 체계들』, 19쪽 이하에서 ‘거대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거대이론(Supertheorien)은 보편주의적 요구들을 가지는 이론들이다(그리고 그 요구는 자신과 그 반대자를 포괄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진화라는 거대이론은 다윈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변이와 선택의 차이로 전환되었다”라고 거대이론의 위상을 설정하고 있다.

접근은 '순환논증'적이다. 후속소통은 일방적인 지배, 피지배 관계 하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가부장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일방적인 지배, 피지배 관계에 의한 강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후속 소통'이 지속되는 의미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루만적 개념에서 보면 가부장제하의 지배, 피지배 관계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가부장제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자기 생산적'(autopoiesis)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⁴⁾

본 연구자는 그동안 하버마스 식의 '양성평등의 당위성'에 대한 합리적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왔으나 당위론적 주장이 갖는 한계를 느끼게 됨에 따라 루만의 자기생산 체계의 개념에 대해 우연한 기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버마스는 현대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그 소통의 전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남녀의 의사소통을 위한 합리적인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Habermas, 1988). 그러나 진정 가족 안에서 남녀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이야말로 남성의 권력 하에 남녀관계가 위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가부장적인 공간이라고 비판하여 왔다(서선희, 2016).⁵⁾

루만에게는 하버마스식의 의도된 의사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루만에게 심리체계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과 같은 것으로 우리 모두는 각

4) 본 연구자는 박사논문에서 그동안 여성학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동적, 피해자적 관점에 집중하여 가부장제 사회를 분석했던 것에서 나아가 여성의 가부장제하의 자기동조성(Mittraeterschaft)을 강조하던 독일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인 프리가 하욱(Friga Haug)의 입장을 수용하여 한국의 가부장적 성별분업구조를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나(Kim, 2000), 귀국 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놓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루만의 체계이론을 접하게 되면서 이 또한 상당히 순환논증적인 방식의 접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5) 한국의 저출산 1위국으로서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배은경, 2010).

자 자기준거적으로 닫힌 체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Gripp-Hegelstange, 1995: 83). 정작 우리 자신도 체계의 환경으로만 작용할 뿐인 것이다. 나는 내 말을 내가 뜻한 바대로 상대가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나의 역할은 다만 내 의사를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내가 전달한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상대의 몫일 뿐이다.⁶⁾ 소통의 속행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조건들만 충족되면 되지 ‘무한한’ 본질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게 루만의 생각이다. 루만은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통(Kommunikation)에 의해 사회가 구성된다고 보았다(Gripp-Hegelstange, 1995: 79). 이러한 그의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 루만은 유럽의 인식론적 전통에서 개인을 인식하는 주체로 세우는 존재론적 관점을, 관찰함(Beobachten)이라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관찰자 개념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관찰자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은 관심대상에 대한 구별을 통한 지시로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동일성(Einheit)이라고 명명한다(Luhmann, 1990b: 523).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각자 닫힌 체계 안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구조화하고 있으며, 가부장제 역시 자신의 닫힌 체계 안에 구조화된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루만의 인상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50억의 심리적 체계와 50억의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다(Luhmann, 1990a: 54). 따라서 루만은 의사소통을 위해 하버마스처럼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요구하는 공공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루만은 오히려 자신의 닫힌 체계의 한계를 스스로 성찰하는 관찰자적 시각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루만의 인식론에 있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즉, 문제는 환경을 선택하는 체계의 가능성에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환경으로부터 가부장적 사회체계가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소통 메카니즘이라고 하겠다. 바로 이 메

6) 여기에서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가 주체로 세워진다. 따라서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제도의 희생자만은 아니다.

카니즘을 밝힐 수 있을 때 루만이 지적하는 학문의 이데올로기적 순환논증을 극복할 수 있는, 즉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이해에 있어 이데올로기성을 극복하고 그것이 재생산되는 후속소통 메카니즘을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

2)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성

체계/환경-차이 이론의 페미니즘적 수용가능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페미니즘은 이데올로기적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제기해 보고자 한다. 이는 페미니즘을 처음 공부하고자 할 때 누구나 거쳐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식론적인 질문이다. 페미니즘 입장론의 주장과 같이 여성주의적 당파성 없이 페미니즘은 존재할 수 없다. 페미니즘 인식론은 주류학문의 남성중심성, 이분법적 사고와 객관성, 가치중립성, 보편적 진리와 같은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김미경, 2012). 또한 지식생산과정에서의 남성중심적 권력관계를 비판하고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탈위계화된 관계를 강조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페미니즘 인식론은 연구방법과 연구과정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여 맥락적, 상황적 이해를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이론들을 통해 페미니즘은 여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여 왔으며 성별화된 사회에서 젠더체계의 영향력을 인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로의 정치적 변화를 지향하여 왔다(이재경, 2016).

가부장제의 남녀불평등 체계를 비판해온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성을 대표하는 이론으로는 크게 급진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 맑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 그리고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김미경, 2012).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억압의 기원을 모성이데올로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

성들에게 모성권 포기전략을 주장하였다. 여성이 생물학적 모성권을 포기할 때 남성과 진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기에 이들은 급진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다. 이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은 ‘모든 사적인 것의 정치화’를 주장하면서 여성운동의 확산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나중에 에코 페미니즘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생물학적 출산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은 가부장 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 분명하다. 생물학적 모성권을 포기하기 보다는 재생산을 선택을 하는 여성들이 더 많은 그동안의 경험적 사례는 루만이 이야기 하는 후속의사소통 이론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봉건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남성과 동등한 교육권과 정치권, 경제권 획득을 통한 근대사회로의 진입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급진적 페미니즘처럼 여성의 생물학적 권리조차 포기하면서 가부장적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보다는 남성과 동등하게 권력을 나누고자 하는 ‘끼어들기’ 전략을 선택하였다. ‘끼어들기’ 전략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여성운동은 봉건적 여성의 종속관계를 벗어나는데 있어 가장 큰 파급력을 끼쳤으며 지금까지도 여성운동의 기초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인간관계의 불평등을 설명하고 있는 맑스주의는 남녀불평등 역시 사적소유의 발전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고 여성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과 함께 자본에 저항하여야 한다는 프롤레타리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제참여를 비롯한 진보적 여성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많은 비판 역시 받았다. 가족 안에서의 가부장적 성별분업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는 이중의 노동부담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은 경제의 비공식부문에서 공식부문으로 이동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어도 주로 불안정 노동을 수행하고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2차 노동시장에

서 남성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Kim, 2000).

따라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의 문제에 주목하고서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노동하는 여성의 사적 경험에 집중한다. 독일의 경우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공장여성노동자의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통해 일가족 양립 정책을 제안하고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성별분업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여 왔다.

에코 페미니즘은 사냥하는 남성과 채집하는 여성이라는 원시시대의 성별분업이 어떻게 계승유지 되어 왔는지 남녀불평등의 기원을 성별노동분업에서부터 찾고서 현재 자본주의의 환경파괴적인 생산성을 남성주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여성의 재생산 능력에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함으로써 현재의 소비적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왔으나 남녀의 이분법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여전히 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일체의 근대성을 거부하고 근대를 해체하고자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전의 급진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맑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 등 근대성에 기초한 일체의 이론들과 거리두기를 한다.

최근의 여성학적 이론들 역시 바로 이러한 페미니즘에 뿌리를 두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이론들은 이론의 진보성에 있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남녀불평등 체계에 문제제기 하고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 각 이론들은 역사성을 가지고 각 자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여성운동에 유용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제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체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이 주를 이루고 이 체계가 어떻게 소통되어 지속적으로 후속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여성학의 체계이론 수용을 위한 인식론적 논의

1) 루만의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제기

루만은 실제로 페미니즘이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조건들을 충분히 성찰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Jahraus und Nassehi, 2012). 페미니즘은 자기성찰의 부재로 인해 분석과 연구, 논증의 구조화가 아닌 이데올로기적으로 물든 행동주의의 자기준거(Selbstreferenz)만이 무성할 뿐이라는 것이다. 사회운동으로서 여성이론은 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충분한 근거의 계획(Konzept)도, 세분화되고 정교한 개념(Begrifflichkeit)도 없이 선동만 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페미니즘은 이론적으로 자기성찰(Selbstreflexion)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여기서 이론적 자기성찰이라 함은 페미니즘이 관찰자로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2차등급 관찰자적 관점에 머물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차등급 관찰이 ‘무엇이…유형이냐’라는 질문에서 비롯된다면 2차등급 관찰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그 유형이 발생하느냐’라는 질문이 근본적이다(Gripp-Hegelstange, 1995: 90).⁷⁾ 이와 유사하게 루만은 윤리학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윤리학이 근대사회에서 도덕이 담당하고 있는 실제적 기능을 분석하기보다 스스로 도덕화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루만에게 있어 2차등급 관찰자란 “…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성을 배제하고 체계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구성되는 작동원리를 구별과 지시의 개념을 통해 관찰하는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2차등급 관찰자 역할의 관점에서 운동성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다

7) 1차등급 관찰자가 보지 못하는 ‘다른 관찰자의 관찰 방식의 맹점’을 볼 수 있는 장점을 갖는 2차등급 관찰자를 빗대어 루만은 하버마스와 의 인식론 논쟁에 있어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Ich sehe was, was Du nicht siehst)라는 글을 남겼다(정성훈, 2009: 238).

시 말해 페미니즘은 그 운동론적 성격으로 인해 이론으로서 2차등급 관찰자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루만은 페미니즘은 객체차원과 거시차원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예를 들어 평등을 주장할 때 남성과 여성이라는 객체차원의 평등을 선동하는데 거기에서의 역설(Paradoxie)은 평등을 요구하면서 남녀의 차이(Unterscheidung)를 그 근거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Nassehi, 2003: 86). 즉, 여성운동사에 있어 시몬느 보바르(Beauvoir)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다”는 유명한 명제를 남기면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주체로 서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리가레(Irigaray)는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을 주장하였다. 물론 체계이론은 이러한 페미니즘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 분명하지만 루만에게 있어 차이를 만드는 구별은 인식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인식론적 전제가 페미니즘과는 완전히 다르다. 루만에게 있어 성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처럼 사회 구조적 구성물이 아니며, 성차는 인식의 전제인 구별의 결과일 뿐이라고 본다.⁸⁾ 즉 루만에게 있어서는 구별 없이 인식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루만의 ‘역설’(Pradoxie)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진다. 관찰자가 구별과 지시를 통해 이쪽 면을 선택하는 순간, 선택되지 않은 저쪽 면의 존재가 바로 역설에 해당한다. 즉, 여성학은 1차등급 관찰자로서 가부장제의 불평등이라는 관찰가능한 선택된 ‘이쪽면’만이 아니라, 2차등급 관찰자로서 구별에 의해 차이가 생긴 선택되지 않은 관찰 불가능한 ‘저쪽면’의 가능성에 대해 동시에 통찰해야 한다는 것이 루만의 생각이다. 그 근거로 루만은 사회구조와 관련해 사회진화는 왜 비대칭성이 잘 기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근대 사회에서 남녀 차이는 계층적 위치에 상응하게 비대칭적으로 재생산되었고 이는 근대사회의 기능적 분화

8) “Geschlecht ist für die Gesellschaft keine Strukturkategorie, die Geschlechterdifferenz ist eine Unterscheidung, die einen Unterschied macht”(Luhmann, 1983).

에 의해 해체됨으로써 의미의 구조변동이 이루어졌다. 사랑의 경우, 신분적, 계층적 장벽을 넘어선 열정적 사랑이 결혼을 통해 낭만적 사랑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사랑의 의미론 변화와 사회구조변동의 관계를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Luhmann, 1982).

루만은 사람(Person)의 문제가 아닌 사안의 문제(Sachproblem)이며 사실선택이 문제의 관건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정부나 야당, 기능과 역할 등이 중요하지 이 주제에 있어 남자 또는 여자라는 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한다.⁹⁾ 그러나 루만의 이러한 시각은 근대의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의 남녀성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에는 분명하다. 사실 루만은 후기에 포함, 배제의 메타코드에 의한 탈분화 현상에 주목하고서, 분화와 사회구조 그리고 성차의 체계적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 그 동안 젠더 연구의 이론적, 개념적 기여를 무시하고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성에만 주목하고 있는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

루만이 여성학 이론이 그동안 이론 성과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음에 분명하나 여성학이 운동성을 띤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듯 하다. 여성학이 1차등급 관찰자로서만 머물 때 가부장적 구조의 많은 것을 놓치게 되므로 2차등급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루만의 지적을 수용하는 것은 앞으로 페미니즘의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루만의 페미니즘 비판의 핵심은 이론(여성학)의 자기성찰 부재에 있다 할 수 있다.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루만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2차등급 관찰자적 관점의 부재로 ‘어떤 것’을 관찰하는데

9) 본인은 최근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라는 유태계 폴란드 사회학자 바우만(Baumann)의 책을 읽으며, 홀로코스트가 독일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이나 근대의 전근대성의 해체과정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대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종주의의 결과이며, 현재의 문제라는 메시지를 상기하며, 홀로코스트는 ‘사람이 아니라 사안이 문제이다’라는 루만의 명제가 오버랩 되었다(바우만, 2013).

만 몰두함으로써 ‘어떻게 보는가’를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 1차등급 관찰자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 할 때, 2차등급 관찰자는 1차등급 관찰자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지를 보기 때문이다(이철, 2013).

루만에게 있어 학문체계의 시대적 과제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둔감한 ‘의미론의 지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본 연구자가 주목하는 점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이 사회구조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어떤 의미론적 지체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페미니즘은 자신을 스스로 관찰하는 2차등급 관찰자적 인식론이 진정 부재한 것일까?와 같은 질문들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들을 살펴보기 전에 루만과 페미니즘에 있어 ‘성찰’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 루만과 페미니즘에 있어 성찰의 개념

루만에게 있어 성찰은 한마디로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관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바로 이 지점에 이념적 성격은 배제되기에 성찰을 행위자의 의도된 이성작용으로 보는 비판이론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페미니즘에 있어 성찰의 개념은 비판사회학 전통의 사회주의적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는데, 여성운동에 있어 성찰의 개념을 중시하고 있는 독일의 여성사회학자인 크납(Knapp)은 공장여성노동자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여성의 자의식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였다. 그녀는 여성학 연구자의 방법론에 있어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찰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전까지의 페미니즘적 방법론과 획에 그었다(Knapp, 1989).

그러나 루만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학의 가부장적 남녀불평등 구조에 대한 관찰은 앞서 논의한 바 있듯, 1차등급 관찰자적 입장에 머무는 것이다. 즉 ‘무엇이 문제인가’에만 집중함으로써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놓치고 있

다. 성찰개념에 대한 비판사회학적 전통과 루만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론적 입장에 기인하고 있다. 비판사회학에서는 성찰의 주체에 대한 인식, 즉 주체론적 성향이 강한 반면, 루만은 주체와 객체를 상정하는 서구의 전통인식론을 거부하고 자기준거적 체계를 성찰하는 관찰자적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체계/환경-차이’ 이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Luhmann, 1987). 따라서 ‘구유럽적’ 인식론에 익숙한 사회학도에게 루만의 개념은 매우 생소할 뿐만 아니라 난해하다. 더군다나 루만의 인식론은 사회학자보다는 물리학자, 생물학자, 수학자들에 의존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루만은 ‘의미를 지니는 주체’를 배제하고 이성이나 진리에 대해 회의하며, 체계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만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보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기존의 비판사회학적 전통의 ‘성찰’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루만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루만이 ‘구 유럽적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그동안의 사회학적 인식론의 전통에서는 인식하는 주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루만에게는 인식하는 주체는 없고 구별-지시하는 관찰자만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상이한 관찰자들에 의해 분화된 통일성(Einheit)으로 파악하며, 상이한 관찰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노진철, 2000). 따라서 루만에게 있어 회귀적(rekursiv) 성찰성¹⁰⁾이란 관찰자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¹¹⁾ 그렇기 때문에 루만의 체계/환경-차이이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페미니즘은 자신의 체계와 그 환경을 관찰하는 2차등급 관찰자적 관점이 부재한 것이다. 루

10) 그동안 rekurziv를 ‘재귀적’으로 번역하여 왔는데, 『사회적 체계들』 번역이 나온 이후 reflexiv를 재귀적으로, Reflexivitaet는 재귀성으로, rekurziv는 회귀적으로 번역되고 있다.

11) 따라서 루만은 2차등급 관찰자는 첫째, 관찰과 지시를 통해 체계의 기초단위를 이루는 동일성(Einheit)이 우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을 볼 수 있으며, 둘째, 1차등급 관찰자의 관찰방식의 맹점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2차등급 관찰자가 1차등급 관찰자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더 나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Gripp-Hegelstange, 1995: 90-91).

만은 페미니즘을 포함한 모든 이론의 2차등급 관찰자적 성찰의 부재를 지적한다. 따라서 루만의 체계이론에서의 '성찰' 개념은 기존의 사회학적 전통에서 사용되어진 자기반성적 의미의 성찰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루만의 인식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회학적 전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귀적 성찰의 개념보다 회귀적 성찰의 개념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¹²⁾

4. 루만의 체계/환경-차이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수용 가능성

루만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여성학자들의 루만의 체계이론의 여성학에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Becker-Schmidt, 1995),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성과 의미지체에 대한 체계이론적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것이 여성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00년 초 이후 젠더연구에서 역시 체계이론을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성차는 어디서 기인하는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성차가 중요하게 작동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가부장제의 자기준거적 닫힌 체계가 환경에 대한 어떤 우연적 선택을 하는가?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2차등급 관찰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젠더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주장하여 왔다(Pasero und Weinbach, 2003; Weinbach, 2008).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충분히 소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부장제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에도 왜 가부장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12) '회귀적 성찰'은 관찰자가 자신인 체계와 타자인 환경의 <차이>를 관찰하는 것이고, 재귀적 재귀성은 관찰자가 과거의 자신의 관찰 내용을 현재의 관찰에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의 체계로서 존재하는 것일까? 이것이 아마도 많은 여성학자들이 고민하는 문제의식일 것이다. 순환논증은 체계의 작동원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이미 존재하는 체계의 의미와 구조만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기에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루만식으로 체계의 작동원리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가부장적 체계와 환경을 구별하면서 환경으로부터 체계자신을 구별해내는 작동”을 관찰하는 2차등급 관찰자적 역할을 여성학이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부장적 체계는 자신의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이항적 선택을 하는가?”

그동안 여성학은 가부장제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가부장체계의 ‘저쪽면’에 대한 분석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을까? 가부장제의 이항대립에 대한 동시적 이해가 가부장제의 체계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본 연구자가 루만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페미니스트들의 가부장제 분석의 핵심이 되어 왔던 가부장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에서 벗어나 가부장제의 단한 체계 안에서의 자기만의 의미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는 보다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루만이론이 궁극적인 토대로 삼고 있는 것은 ‘작동’ 밖에 없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주체의 자리에 경험적으로 관찰될 수 있고 작동상 단한 자기준거적 체계가 들어서게 된다(Gripp-Hegelstange, 1995: 34). 그러나 가부장적 체계의 작동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체계요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부장적 젠더체계는 가부장적 체계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부장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체계요소로는 모성이데올로기, 성별노동분업, 가부장적 폭력 등을 들 수 있겠다. 물론 모성이데올로기, 성별노동분업, 가부장적 폭력 역시 스스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모성이데올로기, 성별분업, 가부

장적 폭력을 자기준거적 젠더체계를 구성하는 가부장제의 체계요소로 보고 이것들이 어떤 구조적 연동을 가지고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부장제의 체계요소, 체계요소의 조건화

루만은 그의 저서 『사회적 체계』에서 “체계의 요소들은 체계들을 통해서만 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젠더체계의 핵심개념인 모성이데올로기나 성별분업, 가부장적 폭력들은 자기 생산적 체계의 요소들이며 또한 체계 내에서 재생산되면서 가부장적 체계를 지탱하는 코드를 결정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루만에 따르면 “체계는 최소한 요소들 사이의 관계들의 집합이어야 하고 이를 규제하는 조건화로 인해 복잡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루만은 요소들의 단순한 합을 체계라 보지 않으며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조건”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성(Kontingenz)에 의해 발현된다. 그렇다면 가부장제의 핵심요소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우연적’ 조건들이 무엇인가?

루만은 체계요소를 이루는 사건으로 체험, 행위, 의사소통을 들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시간화된 복잡성(노진철, 2000)에 대해 주목한다. 현상학적 의미의 사건들의 연결은 체험과 행위에 관련된 실현 가능성의 지시연관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건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화된 추후사건으로서 선택된 것으로서 루만적 개념에 따르면, 구별-선택과정에서의 정보, 통보, 이해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루만은 “이해는 오직 특별한 구별, 말하자면 체계와 환경을 구별하고 이 구별 안에서 폐쇄적이며 자기준거적으로 재생산된 의미를 투사할 때만 나타난다”고 보았다(Luhmann, 1987: 112). 따라서 사회체계는 이러한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 의미체계인 것이다.

루만은 “체계형성의 복잡성은 복잡성 환원을 통해, 그리고 이 환원을 선

택적으로 조건화하는 것을 통해 비로소 형성되며, 유일하게 그것을 통해서만 요소로서 기능하는 것의 지속이 체계형성의 자기재생산과 맞추어질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진화라 한다(Luhmann, 1987: 48).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의사소통하거나 행위하는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의식적 행위의 결과인 사회적 사건은 행위자들의 의식작용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Luhmann, 1987). 그 결과 루만은 사회체계에 대한 분석에 있어 심리치계를 제외시킨다. 즉, 모성이 데올로기나 성별분업, 가부장적 폭력과 같은 가부장적 젠더 체계의 요소들은 인간들에 의해 시간화된 복잡성 속에서 체험과 행위,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식적 작용이지만, 이 요소들이 사회적 사실이 되는 순간 이는 행위자의 의식차원으로 환원할 수는 없는 자기준거적 체계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자, 여자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시간화된 복잡성 속에서 체험과 행위, 의사소통을 통해 모성이데올로기나 성별분업, 가부장적 폭력과 같은 가부장적 젠더체계의 요소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 요소들은 사회적 사실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의식차원으로 환원할 수는 없는 자기작동 구조를 갖는 체계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들은 대부분 작동하는 1차등급 관찰자에 머물 뿐이지 이를 관찰하는 2차등급 관찰자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루만은 사회학이 바로 이러한 2차등급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관찰은 이데올로기적인 개입이 아니라 구별-지시-자기준거적 자기생산이라는 체계의 작동원리를 파악하는 것이어야 한다.¹³⁾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학 역시 2차등급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13) 루만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저서 *Soziale Systeme*의 서문에서, “Wir werden daher an fachfremde, interdisziplinär erfolgreiche Theorieentwicklungen anknüpfen müssen und wählen hierfür Ansätze zu einer Theorie selbstreferentieller, autopoietischer Systeme.”이라 밝히고 있다(Luhmann, 1987: 11).

루만에게 있어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것은 사랑, 권력, 화폐, 진리이다 (Luhmann, 1987). 그리고 이 네 가지 매체를 통해 사회에는 친밀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과학체계가 생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결국 젠더체계의 소통 매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젠더체계는 친밀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과학체계 전반에 걸쳐 소통되기 때문이다.¹⁴⁾ 즉, 친밀체계의 체계요소로서 가족관계 안에서의 모성이데올로기는 사랑을 매체로 소통되며, 성별분업은 가부장적 경제체계 안에서 화폐를 매체로, 가부장적 폭력은 권력을 매체로 소통된다. 같은 맥락에서 페미니즘은 과학으로서 진리를 매체로 소통한다. 따라서 진리, 비진리의 이항구조 안에서 소통하는 페미니즘은 젠더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으로 모성이데올로기와 성별분업, 가부장적 폭력을 분석하는 1차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학은 이러한 젠더체계 내 각 체계요소들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자기준거적 작동을 통해 생성, 유지되는지를 관찰하는 2차등급 관찰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체계/환경-차이 이론의 페미니즘에의 시사점

정치체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루만에 따르면 정치체계는 매체, 코드, 기능을 가진 자기생산체계로서, 정치체계에서 권력은 억압수단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매체일 뿐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를 위해 매체는 코드화되어야 하는데, 정치체계의 권력 매체는 권력우세/권력열세라는 코드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가부장적 폭력은 젠더체계의 권력매체의 권력우세/권력열세라는 코드화 결과 안에서 구별-선택과정에서의 정보, 통보,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 소통의 결과로서 자기준거적 자기생산체계로서 젠

14) 따라서 본 연구자는 친밀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과학체계를 젠더체계를 구성하는 체계요소로 보고자 한다.

더체계의 요소를 이룬다 하겠다. 사실 권력자체에 대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권력을 매체로 하는 정치체계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학은 권력이 한 사회와 문화에서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는가의 분석에 주로 몰두해 온 것은 사실이다. 페미니즘 역시 젠더체계 내 가부장적 권력의 이데올로적 기능 분석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루만은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대한 담론분석에 앞서 체계의 매체와 코드를 통한 작동원리가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 학문이 표방하여 오던 학문의 우월성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또한 지적한다(서영조, 2000). 루만이 학문의 이데올로기성을 비판하는 이유는 오늘날 사회이론들이 사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옛 설명개념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의 성격이 바뀌면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들도 바뀌어야 하는 학문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루만이 보기에 그동안의 학문은 정치를 “사회적 구성적 본질”로 파악하는 오랜 유럽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루만은 오랜 유럽적 전통은 사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에 낡았다고 본다. 오늘날의 사회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독자적인 기능체계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과거의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때문에 루만은 정치도 ‘새롭게’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루만에 의하면 정치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 속의 한 특별한 영역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정치동학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루만은 오늘날의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치적 사회’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정치’라는 관념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정치라는 관념은 한마디로 전통적으로 정치에게 요구되어온 윤리적 책임성과 기능적 우위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서영조, 2000: 266). 사회의 정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페미니즘 정치동학이 수행해온 가

부장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과 기능적 우위성을 내려놓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 하겠다.

루만은 “권력은 권력종속자의 복종의향에 의해서 비로소 생성되는 것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Luhmann, 2000; 27). 사실 이 부분이 ‘이항대립구조’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루만의 의도라 보여진다. 달리 말하면, 지배자의 지배구조에만 관심을 가져 왔던 진보이론에 대해 피지배자의 피지배구조의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의 차이이론의 수용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가부장적 젠더체계의 역설에 대한 주목에 달려있다. 그동안 페미니즘은 젠더체계의 ‘이쪽면’의 구조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주목함으로써 ‘저쪽면’의 존재에 대해 눈감아 온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차이 없이는 인식작용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는 루만 차이이론의 인식론적 전제의 수용으로부터 남녀의 차이에 기초한 가부장적 젠더체계의 소통메카니즘에 대한 관찰이 가능해질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는 젠더관계의 역설, 즉 가족 안에서 사랑을 매체로 한 모성이데올로기에 내포된 역설과 화폐를 매체로 한 성별분업 구조의 역설, 그리고 권력을 매체로 한 가부장적 폭력의 역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각 체계의 기능적 등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며 가부장성에 반하는 반가부장성, 즉 보다 평등한 젠더체계로의 체계요소들의 재구성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여성학이 그동안 취해 온 이데올로기성을 극복하고 젠더체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적 등가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모성이데올로기는 남성의 강요라는 ‘이쪽면’과 여성의 수용이라는 ‘저쪽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성별분업과 가부장적 폭력 역시 같은 이항대립구조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루만은 비교적 뒤늦게나마 기능적 분화의 침식, 즉 탈분화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영역인 친밀관계가 공공화됨으로써 돈과 권력, 진리 등이 사랑의 이유가 되는 경우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를 루만은 현대

성의 위기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체계의 생활세계 식민화’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겠는데, 루만은 이를 포함/배제 메타코드가 기능체계의 코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포함되기 위해 불법이 용인되고 진리가 금전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정성훈, 2009). 따라서 여성학이 루만의 차이이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젠더체계의 이항코드로서 반가부장적 젠더체계의 구조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메타코드가 기능체계의 코드를 무력화시키는 구조의 관찰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본 연구자의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앞서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이 글은 여성학이 그동안 해오던 가부장적 체계에 대한 이념적 비판에서 나아가 루만의 ‘자기준거적 생산체계’(Eine Theorie selbstreferentieller, autopoietischer Systeme)의 개념에 따라 젠더체계의 작동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2차관찰자로서 역할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물론 루만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과 달리 여성학은 가부장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을 넘어 가부장체계의 재생산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학이 1차등급 관찰자로서 가부장제의 불평등구조의 관찰 가능한 선택된 ‘이쪽면’ 뿐만 아니라, 선택되지 않은 관찰 불가능한 ‘저쪽면’의 가능성을 동시에 통찰함으로써 가부장체계의 후속소통 구조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루만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미경(2012), 『여성노동시대: 일·가족양립을 위한 여성주의 사회복지』, 서울: 도서출판 나눔의 집.
- _____ (2015), “젠더질서의 변화와 ‘유연한 젠더레짐: 여성정책에서 성평등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고”, 『사회사상과 문화』, 제18권 4호, 395-423쪽.
- 노진철(2000), “루만의 자기준거적 체계이론과 성찰적 현실진단”, 『과학사상』, 제35호, 195-218쪽.
- 바우만, 지그문트(2013),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정일준 옮김, 서울: 새물결, Bauman, Z.(2001), *Modernity and the Holocaust*,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배은경(2010),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 문화』, 제3권 2호, 37-75쪽.
- 서선희(2016), “가족은 정의롭지 못한가?”, 『사회사상과 문화』, 제19권 3호, 117-145쪽.
- 서영조(2000), “니클라스 루만의 윤리학 비판과 도덕의 기능 분석”, 『현상과 인식』, 통권 제81호, 65-86쪽.
- 안숙영(2010), “세계화, 젠더 그리고 지구적 전략”, 『젠더와 문화』, 제3권 1호, 175-202쪽.
- 이재경(2016), “페미니즘 인식론과 방법론”,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2016.6.18).
- 이철(2013), “(작동하는) 사회의 (관찰하는) 사회: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의 사회」의 이론적 함의들”, 『한국사회학』, 제47집 5호, 35-71쪽.
- 임옥희(2011), “신자유주의 시대와 젠더무의식”, 『젠더와 문화』, 제4권 2호, 37-70쪽.

정성훈(2009), “루만과 하버마스의 대립구도에 대한 하나의 이해”, 『진보평론』, 제40호, 237-259쪽.

Becker-Schmidt, R.(1995), “Homomorphismus. Autopoietische Systeme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in *Diese Welt wird völlig anders sein. Denkmuster der Rationalisierung*, B. Aulenbacher und T. Siegel(Hg.), Pfaffenweiler: Centaurus-Verlagsgesellschaft, pp. 99-119.

Beer, U.(1989), *Klasse Geschlecht. Feministische Gesellschaftsanalyse und Wissenschaftskritik*, Bielefeld: AJZ.

Gripp-Hegelstange, H.(1995), *Niklas Luhmann. Eine erkenntnistheoretische Einführung*, München: Wilhelm Fink.

Habermas, J.(1988),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2 Bände), Frankfurt am Main: Suhrkamp.

Jahraus, O. und A. Nassehi(2012), *Luhmann-Handbuch: Leben - Werk - Wirkung*, Stuttgart und Weimar: J. B. Metzler.

Kim, M. K.(2000), *Frauenarbeit im Spannungsfeld zwischen Beruf und Familie*, New York und Frankfurt am Main: Leske+Budrich.

Knapp, G. A.(1989), “Arbeitsteilung und Sozialisation: Konstellation von Arbeitsvermögen und Arbeitskraft im Lebenszusammenhang von Frauen”, in *Klasse Geschlecht. Feministische Gesellschaftsanalyse und Wirtschaftskritik*, U. Beer(Hg.), Bielefeld: AJZ, pp. 267-308.

Luhmann, N.(1982), *Liebe als Passion: Zur Codierung von Intimität*, Frankfurt am Main: Suhrkamp.

_____ (1983), “Frauen, Männer und George Spencer Brown”, in *Frauen, Männer, Gender Trouble: Systemtheoretische Essays*, Pasero, U. und C. Weinbach, C.(Hg.)(2003), Frankfurt am Main: Suhrkamp. pp. 15-62.

_____ (1987), *Soziale Systeme: Grundriss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_____ (1990a), *Soziologische Aufklärung 5: Konstruktivistische Perspektive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_____ (1990b), *Wissen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_____ (2000), *Die Politik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Nassehi, A. (2003), “Geschlecht im System. Die Ontologisierung des Körpers und die Asymmetrie der Geschlechter”, in *Frauen, Männer, Gender Trouble: Systemtheoretische Essays*, U. Pasero und C. Weinbach (Hg.), Frankfurt am Main: Suhrkamp, pp. 80-104.

Pasero, U. und C. Weinbach(Hg.)(2003), *Frauen, Männer, Gender Trouble: Systemtheoretische Essays*, Frankfurt am Main: Suhrkamp.

Weinbach, C.(2008), *Systemtheorie und Gender: Das Geschlecht im Netz der Systeme*,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논문 투고일: 2016.10.31, 심사 확정일: 2016.12.05, 게재 확정일: 2016.12.17)

〈Abstract〉

A Study on the Feminist Acceptability of Niklas Luhmann's System Theory

Kim, Mi-Kyong*

Women's studies which have played a central role as advanced studies got to difficult to be reproduced in the succeeding generation as it was more institutionalized than other areas. This paper tried to connect women's studies to Luhmann's system theory in the process that considers things necessary for development of it. It tries to understand the possibility that the methodology of system/environment-difference theory that systems approach environment can be accepted in epistemology of feminism by the observer concept of Luhmann, not the viewpoint of the judging main agents which are regarded as important in the Western traditional epistemology. In the process, it will review Luhmann's criticism, "Feminism just stays at ideological criticism about patriarchy."

Key words: Western traditional epistemology, system/environment-difference theory, institutionalization of feminist movements, ideology of theory, follow-up communication mechanism

* Professor, Department of Welfare Policy, Gwangju University